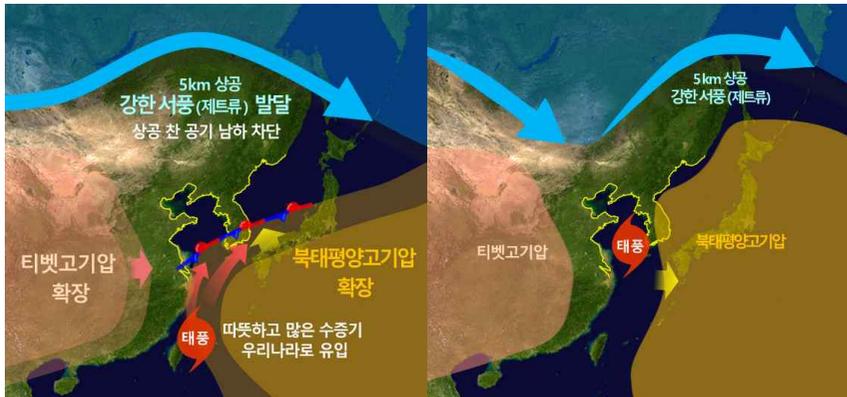


배포일시	2019. 9. 2.(월) 17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허복행 예보관 한상현
		전화번호	042-863-0367

9월 3~5일 강수와 제13호 태풍 링링 전망

- 대전.세종.충남 3~5일 정체전선 영향 많은 비(돌풍, 천둥·번개 주의)
 ※ 예상강수량(3일부터 5일까지): 100~200mm(많은 곳 300mm 이상)
 - 6~7일 태풍 영향, 전국 많은 비, 강한 바람 주의



9월 2~5일 정체전선과 기압계 모식도

9월 6~7일 기압계 모식도(태풍)

□ (정체전선의 발생) 최근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는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부터 북상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남해상에 정체전선이 발달하였고, 이 영향으로 2일(월) 15시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

[정체전선 영향, 3~5일 강수 전망]

□ (정체전선의 북상) 앞으로 티벳 고원 부근의 상층고기압(고도 10km 이상에 위치한 티벳고기압)이 확장하여 몽골 북쪽 상층(고도 5km 이상) 서풍이 강해져 ①찬 공기가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는 강도가 약해지겠습니다. 이에 따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여 ②고온다습한 공기의 유입이 강해지기 때문에 ③두 공기가 충돌하는 경계(정체전선)가 주로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.

□ (3~5일 강수 전망) 오늘(2일) 남해안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3일(화)에 남부지방, 4일(수)~5일(목)에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이 영향으로 오늘(2일)은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, 내일(3일) 오전에는 충청도까지,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어 5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

○ 특히, 저기압이 산둥반도 남쪽으로부터 정체전선으로 접근하면서 ①4일 새벽~오전, ②태풍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정체전선으로 강하게 유입되는 5일 새벽~오전에는 비구름대가 더욱 강해지면서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~5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, 총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

* 예상 강수량(3~5일)

- 대전.세종.충남: 100~200mm(많은 곳 300mm 이상)

[태풍 영향, 6~7일 강수 전망]

- (태풍 현황) 9월 2일 09시 경,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13호 태풍 링링(LINGLING)¹⁾이 발생하였습니다. 이 태풍은 15시 현재 중심기압 1000hPa으로 최대풍속 시속 65km(초속 18m), 크기는 소형(강풍 반경 210km)의 세력을 유지하며 시속 33km의 속도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500km 부근 해상을 경유하여 북북서진 하고 있습니다.
- (태풍 전망) 앞으로 태풍 링링(LINGLING)은 대만 동쪽 해상을 경유하여 7일(토) 경, 서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(6~7일 강수 전망) 5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6일(금)부터는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, 태풍의 영향을 받는 7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
- 특히,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6일 밤~7일에는 제주도와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
- (변동성) 3~5일은 정체전선의 위치, 6~7일까지는 태풍의 강도와 경로, 이동속도에 따라 비가 집중되는 구역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니, 최신의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하기 바랍니다.

1) 제13호 태풍 링링(LINGLING)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소녀의 애칭임

[유의사항]

- (많은 비 주의) 비가 내리는 기간이 길고, 비의 양이 많기 때문에, 저지대 침수, 축대 붕괴, 산사태 등 많은 비와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(강한 바람 주의) 특히 6~7일에는 제주도와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초속 30~40m(시속 108~144km)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,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, 수확기 농작물 및 과수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- (높은 물결, 월파 주의) 또한,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함에 따라 5~7일에는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,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, 해안 도로 등에서는 침수에 대비하기 바라며,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하기 바랍니다.